

건설동향브리핑

제549호 (2016. 2. 22)

■ 정책 · 이슈

- 남·북한 간 긴장관계 고조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 중소건설기업 해외 진출시 금융 및 보증 지원제도 보완 필요

■ 경영 · 정보

- 글로벌 50대 혁신 기업, 스피드·기술 플랫폼으로 지속 성장 추구

■ 경제 동향

- 2015년 국내 건설수주 전년비 47.0% 증가한 158.0조원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건설산업 청년 일자리 만들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남 · 북한 간 긴장관계 고조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 없어, 장기화시 외국자본 유출 · 신규투자 위축 가능성 -

■ 건설 분야 협력 사업 없어 건설산업에 직접적 영향 없을 듯

- 그동안 건설 분야에 관한 본격적인 남북 협력사업 추진은 부진하였음. 사회 · 문화 · 경제협력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체육관, 종교시설, 공장 등의 건설사업이 파생됨.
 - 금강산지구 및 개성공단 개발시 호텔, 공장, 지원시설 등의 건설수요 발생
- 남북출입시설 건설(2004~2010), 남북도로 · 철도연결공사(2004~2005) 추진
 - 경의선(도라산), 동해선(고성)에 철도 · 도로출입시설, 물류시설 건설 완료
 - 경의선(철도 27.3km, 도로 12.1km), 동해선(철도 25.5km, 도로 24.2km) 연결공사 완료
- 남북 정상회담('07.10) 이후 '10 · 4 공동선언'에서 '해주경제특구 건설',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등의 추진을 합의했지만 실질적 진전은 없었음.
- 2010년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협력사업이 전면 중단됨.

■ 나진~하산 프로젝트 무기한 보류 가능성

- 개성공단에 진출한 건설업체는 주로 개성공단 내 신규 공장 건설, 또는 기존 공장 증개축 등의 도급공사를 수행하고 있어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제조업체에 비해 적을 것으로 보임.
 - 정부는 2010년 5.24 조치에 따라 기존 공장의 증 · 개축만 허용하고 신축은 불허함.
 - 일부 건설업체의 경우 레미콘 공장을 개성공단 내 만들어 건설자재를 직접 공급한바 있어 기 투자금의 회수가 불투명할 수 있음.
-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무기한 보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¹⁾
 - 철도현대화 사업, 나진항 현대화, 복합 물류사업 등이 골자인 이 사업에 당초 국내 기업들이 참여를 검토하였으나 현재로서는 무기한 보류 가능성이 있음.

1) 연합뉴스 2016년 2월 12일자 참조

<개성공단 협력사업 승인 현황 : 건설 분야(2015년 12월 기준)>

기업	사업 내용	금액 (최초→최종)	사업승인일 (최초→최종)
(주)평야토건	공장건축	1,450백만원	'05.7.19
한국산업단지공단	아파트형 공장	211억원	'05.12.20
(주)비케이전자	아파트형공장 건설 및 분양 임대	32백만불→11,986천불	'07.8.14→'10.2.10
남광토건(주)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종합지원센터 건설 및 개성공단 내 건설사업, 철골 공사업	759만불→1,760만불	'07.8.14→'13.3.5
(주)금호산업	종합지원센터 건설공사		'07.10.8
(주)씨앤씨종합건설	종합지원센터 건설공사→개성공단 입주기업 공장건축 등 개성공단 내 건설사업(추가)		'07.10.8
낙원건설	토목건축, 주택건설, 부동산관리업 등 건설업	70,000백만원	'07.10.9
(주)건우피엠	건설·부동산업	45,054백만원	'07.11.20
씨엘전자주식회사	토목건축, 건설업	546억원	'07.12.3
(주)테림종합건설	건설·부동산업, 공업용시설 건축업 등	32백만불→35백만불	'07.12.06→'12.4.13
지산골드종합건설	공장건축		'08.02.14→'10.4.12
겨레사랑	부동산 개발사업	183억원	'08.03.11
(주)BK건설	아파트형공장 건축	437억원	'08.04.11
(주)아천세양건설산업	개성공단 협동화단지 공장건축		'08.5.19
(주)아름다운GVC건설	개성공단 입주업체 공장건축		'08.5.29→'08.10.29
(주)한맥건설	개성공단 입주업체 공장건축		'08.6.26
(주)현대아산	개성공단 내 건설업, 건자재 생산·공급업 등	14,727만불	'08.7.2→'13.2.19
(주)우영종합건설	개성공단 입주업체 공장건축		'08.8.7→'10.4.7
임오종합건설	공장건축		'08.8.7
(주)금봉개성,씨엘전자	APT형 공장 신축매매 등 건설·부동산업	50,030백만원	'08.8.22
(주)태성씨엔드에이	개성공단 입주업체 공장 건축		'08.10.24
(주)이건하우스	공장신축공사		'08.12.4→'10.2.23
(주)이산종합건설	개성공단 APT형 공장건축		'08.12.15
보광종합건설(주)	개성공단 입주업체 공장 건축		'09.2.16→'09.5.1
한국마이크로힐터(KMF)	개성공단 내 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임대업	3,779천불→54,802천불	'09.4.1→'15.1.12
(주)테림산업→우평코리아	골재, 레미콘, 모래, 벽돌, 블록, 석재 등 건축자재 도소매	44,948불(58백만원)	'09.4.28→'14.4.1
(주)부강	개성공단 내 상가 건축		'09.4.29
동선종합건설	공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10.1.7→'10.4.12
(주)위드건설산업	만선 제1공장 증축 사업, 화인레나운 대체건축	18억 5천만원	'12.7.31→'13.3.12
석천종합건설(주)	공업 및 유사산업용 건설업	18만불	'13.3.12
호평공영(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토공사업	877,192불	'13.5.26
(주)울전종합건설	공장증축공사	8억7천만원	'15.7.14→'15.10.19

자료 : 통일부(2015.12), 남북교류협력동향 중 관련 내용을 재정리함.

■ 남·북한 간 긴장관계 장기화시 외국자본 이탈 등 간접적 영향 있을 듯

-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 고조와 북한 정세의 불안정성이 장기화될 경우 안보리스크를 상승시켜 국내 SOC 민자사업, 부동산개발사업 등에서 외국투자자의 이탈과 신규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음.
-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라선·황금평·신의주 등 중앙급 경제특구와 20여 지방급 경제개발구, 각종 교통·전력 등 인프라 개발에 있어 서구 자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자본 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박용석(연구위원 · yspark@cerik.re.kr)

중소건설기업 해외 진출시 금융 및 보증 지원제도 보완 필요

-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 진출 활성화로 신성장동력 창출 도모 -

■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책 마련 시급

- 해외건설이 국내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외로부터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이 증가하여 이들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축적되어야 함.
 - 해외 건설시장 진출이 대형건설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해외건설 관련 정부 금융지원정책과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도 대기업 위주로 이뤄지는 관행이 고착되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OECD 자료에 의하면, 해외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기업 규모가 해외시장 진입에 장애가 되지 않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편임. 특히 종업원 수 0~9명 규모 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음.
 - 작성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는 제약이 따르지만, 한국의 경우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수가 제한적이고 이들이 수주하는 계약 규모도 크지 않음(누계 기준으로 수주 금액의 9.5%, 수주 건수의 66.5%, 진출업체 수의 89.5%).

<OECD 주요국의 기업 규모별 건설업 수출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개)

구분		2011년					2012년				
		합계	0~9명	10~49명	50~249명	250명~	합계	0~9명	10~49명	50~249명	250명~
미국*	금액	3,373	1,611	196	452	1,114	4,396	2,833	210	367	986
	기업 수	6,020	4,424	957	423	216	5,644	4,191	838	423	192
영국	금액	907	189	162	232	324	742	167	152	178	245
	기업 수	2,888	1,919	650	221	98	1,994	1,176	540	194	84
독일	금액	2,547	1,140	314	375	412	2,379	371	338	433	1,083
	기업 수	7,537	4,231	1,600	343	57	8,373	4,255	1,970	486	121
프랑스	금액	2,090	229	170	319	1,343	1,729	169	186	266	1,098
	기업 수	1,888	868	644	245	121	2,447	1,258	822	248	112

주 : 미국은 2010년과 2011년임.
자료 : OECD.

- 해외 건설시장에서 시공자 금융주선 및 투자 개발형 발주가 증가하는 등 시공 건설기업 재원조달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해외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게 해외 건설시장 진출에 필요한 신용을 공급할 수 있는 금융 및 보증 제도가 필요함.
- 건설업에 대한 신뢰와 해외건설에 대한 이해 부족, 금융기관의 담보 위주 관행으로 인해 대기업에 비해 담보여력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은 해외 건설시장 진출에 필요한 금융 및 보증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 정부 지원과 업체 노력이 병행돼야 성과 거둘 수 있어

- 2013년 8월 발표한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 이후 정부도 중소기업의 해외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같은 공적 수출신용기관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보증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정부가 이미 도입한 지원정책을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금융 및 보증지원 방안의 도입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금융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증가하도록 공적 수출신용기관의 제한된 재원을 활용하는 해외건설 지원 금융구조 재정립
 - 건설업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정책자금을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배분하기 위해 우수 중소기업 선정제도 도입
 -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 관련 보증서 발급이 담보여력이나 신용도 위주에서 사업성 평가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금융여건 조성
 - 정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체제의 정비
- 이러한 금융 및 보증 지원방안은 건설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진입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수익이 높고 안정적인 단계로 이동하려는 중소기업들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의도한 성과를 거둘 것임.

빈재익(연구위원 · jipins@cerik.re.kr)

글로벌 50대 혁신 기업, 스피드 · 기술 플랫폼으로 지속 성장 추구

-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은 Apple, 삼성은 5위에 랭크 -

■ 글로벌 5대 혁신 기업 : Apple, Google, Tesla Motors, Microsoft, Samsung

- 보스턴컨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 BCG)은 2005년부터 매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글로벌 50대 혁신 기업을 선정해 왔음.
 - 2015년 조사 결과, 미국의 Apple과 Google사가 2년 연속 1위와 2위를 각각 차지해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됨. 전체 50대 기업에는 미국 기업이 29개, 유럽 기업이 11개, 아시아 기업이 10개로 조사됨.
 - 전체 50대 기업 중에 비기술 기업이 전체의 76%인 38개사인 것으로 조사됨. 상위 10개사 중에는 5개사가 비기술 분야의 혁신기업(Tesla Motors는 기술과 비기술 분야에 모두 포함)인 것으로 나타남.
 - 조사 기업의 79%가 혁신이 기업 성장 전략의 핵심 요인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 2005년(66%)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임.

<글로벌 50대 혁신 기업>

순위	기업명	순위	기업명	순위	기업명
1	Apple	18	The Walt Disney	35	Volkswagen
2	Google	19	Marriott International	36	Visa
3	Tesla Motors	20	Johnson & Johnson	37	DuPont
4	Microsoft Corp.	21	Netflix	38	Hitachi
5	Samsung Group	22	AXA	39	Roche
6	Toyota	23	Hewlett Packard	40	3M
7	BMW	24	Amgen	41	NEC
8	Gilead Sciences	25	Allianz	42	Medtronic
9	Amazon	26	Tata Motors	43	JPMorgan
10	Daimler	27	General Electric	44	Pfizer
11	Bayer	28	Facebook	45	Huawei
12	Tencent	29	Basf	46	Nike
13	IBM	30	Siemens	47	BT Group
14	SoftBank	31	Cisco Systems	48	MasterCard
15	Fast Retailing	32	Dow Chemical	49	Salesforce.com
16	Yahoo!	33	Renault	50	Lenovo
17	Biogen	34	Fidelity Investments		

자료 : Boston Consulting Group

■ 스피드, 기술 플랫폼, 시장 탐색력 등이 혁신의 성공 요인

- 속도, 린 연구개발 프로세스, 기술 플랫폼, 인접 시장에 대한 전략적 탐색이 혁신을 가능하게 만든 요인들임.
 - 속도(Speed) : 혁신적인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신기술을 적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이를 신속히 시장에서 판매함으로써 초기의 경쟁을 피함과 동시에 이익을 창출함.
 - 린 연구개발 프로세스(Lean R&D Processes) :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하여 연구개발 프로세스의 생산성 제고에 집중함. 특히 린 방식의 활용은 헬스케어, 하이테크, 산업용 제품 등의 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생산성을 20% 이상 개선하였음.
 - 기술 플랫폼(Technology Platforms) : 디지털 및 데이터 기반의 기술은 기업의 기본적인 기능에서 제품, 서비스 및 사업 모델의 혁신을 위한 근간이 되고 있음. 기술기반 혁신은 비용 및 시간 절감, 자동화, 사업 전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등의 효과를 거둠.
 - 인접 시장(Adjacent Markets) : 주력 시장과 인접한 시장에서의 성장은 혁신 기업의 특징임. 혁신 기업들은 인접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을 통하여 새로운 수요에 대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확보하는 수요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음.

■ 신상품 창출에 주력해야 4차 산업혁명에도 성장 가능

- 혁신을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삼는 글로벌 기업들은 사업의 영역과는 상관없이 시장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구축하고 있음.
 -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습득과 적용, 연구개발의 확대, 생산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구축, 근접 시장에 대한 지속적 탐색과 진출 등이 수반되어야 함.
 - 건설기업도 혁신을 촉진하는 요인들에 집중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새로운 상품 창출에 주력해야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임.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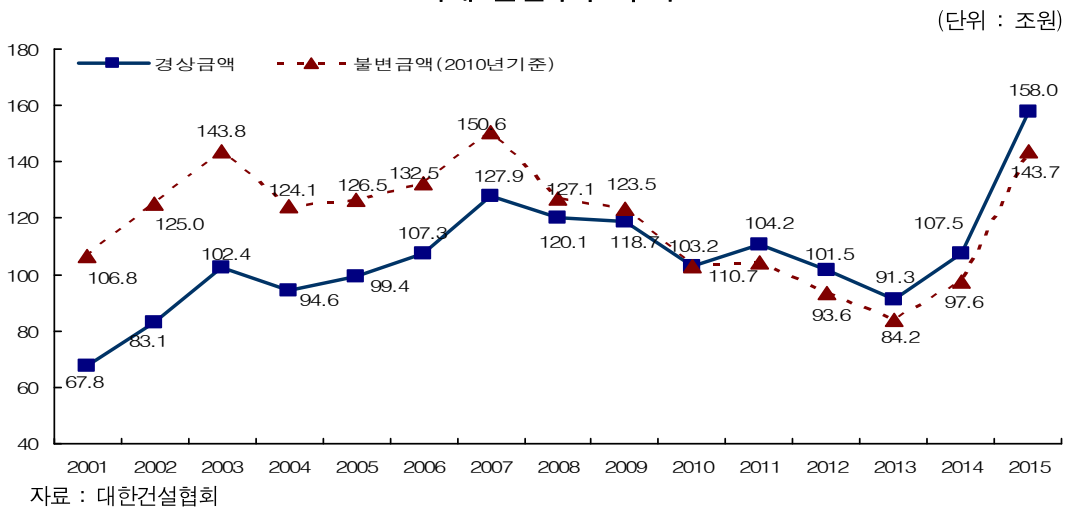
2015년 국내 건설수주 전년비 47.0% 증가한 158.0조원

- 경상금액으로 역대 최대치, 저금리 및 부동산 경기 회복이 상승세 견인 -

■ 경상금액으로 역대 최대치, 민간 부문 상승세 두드러져

- 2015년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증가해 전년 대비 47.0% 증가한 158.0조원을 기록, 경상금액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건설수주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위축, 지난 2011년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6년간 장기적으로 감소해 2013년에는 11년래 최저치인 91.3조원을 기록함.
 - 이후 2014년에 107.5조원으로 1년 만에 다시 100조원대로 반등에 성공
 - 2015년 들어서는 저금리 환경과 부동산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수주가 급격히 상승해 역대 최대치인 158.0조원을 기록함.
- 전년 대비 50.5조원이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역대 최대 증가로 지난 2007년 20.6조원보다 두 배 이상 큰 금액임. 특히, 민간 부문(+46.5조원)의 상승이 두드러졌음.
 - 향후 금리상승 우려감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 업체가 서둘러 발주를 확대하였고, 저유가로 인해 해외사업이 급감한 데 따른 반작용으로 건설기업들이 국내 사업에 집중된 결과로 판단됨.

<국내 건설수주 추이>



1) 단, 불변 금액(2010년 기준)으로는 지난 2007년 150.6조원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143.7조원으로 역대 세 번째로 높음.

■ 공공 수주 : 전년 대비 9.8% 증가, 역대 두 번째로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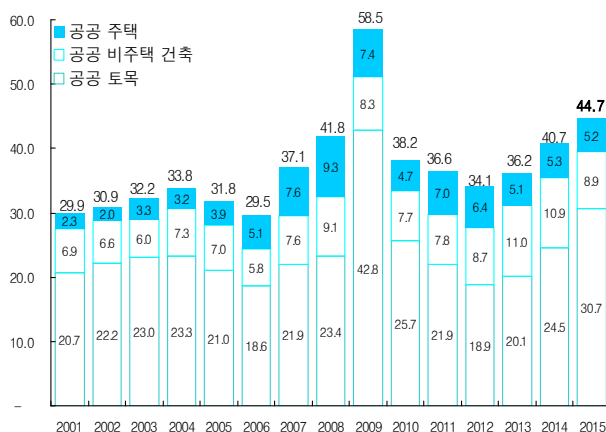
- 공공 수주는 토목수주가 양호해 전년보다 9.8% 증가한 44.7조원을 기록, 역대 두 번째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함.
 - 토목수주의 경우 도로가 전년보다 부진하였지만, 철도와 발전소 등의 수주가 증가해 전년 대비 25.0% 증가, 역대 두 번째로 양호한 30.7조원을 기록함.
 - 주택수주는 지난 2014년 5.3조원보다 1.8% 소폭 감소한 5.2조원을 기록
 - 한편, 비주택 건축수주는 전년 대비 18.6% 감소, 3년 내 최저치인 8.9조원 기록

■ 민간 수주 : 전년 대비 69.7% 증가, 주택과 비주택 건축 역대 최대치 경신

- 민간 수주는 주택과 비주택 건축이 매우 양호해 전년 대비 69.7% 증가, 역대 최대치인 113.3조원을 기록함.
 - 토목수주는 전년 대비 80.9% 증가한 14.8조원으로 3년래 최대치를 기록함.
 - 주택수주는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증가하고, 신규 주택수주 또한 양호해 전년 대비 74.5% 증가한 62.5조원을 기록,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비주택 건축수주 또한 상업용 오피스빌딩 수주의 증가로 전년 대비 58.1% 증가한 35.9조원을 기록, 주택과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함.

<공공 건설수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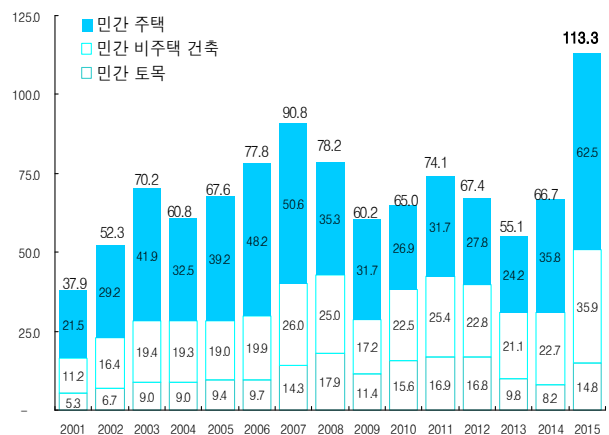
(단위 : 조원)



자료 : 대한건설협회

<민간 건설수주 추이>

(단위 : 조원)



자료 : 대한건설협회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2 2	국토교통부	• ‘2016년 해외 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 회의’에 기술정책연구실 손태홍 연구위원 참여 - 분과별 평가 결과 조정 및 최종 지원사업 선정
2 17	국토교통부	• 기술기준과 주최, ‘기술형입찰 활성화 토론회’에 산업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 기술형입찰 기술 변별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
2 18	국토교통부	• 건설안전과 주최, ‘건설 안전사고 관련 DB 구축 및 활용방안 자문회의’에 경영금융연구실 이홍일 실장 참여
2 19	국토교통부	• 투자심사담당관실 주최, ‘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 분과위원회 회의’에 산업정책연구실 두성규 연구위원 참여

■ 주요 발간물

유형	제목	주요 내용
이슈포커스	건설업 진·출입 제도 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최근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로 인해 「건설산업 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훼손하고, 건설업 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그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건설업 등록과정이나 공공 입찰단계에서 시공능력 평가에 대한 변별력의 기준이 미흡하고 공사착공, 시공, 준공, 사후관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스크리닝이 허술하게 이루어져 부적격 업체의 진입 제한에 어려움이 발생함. • 건설업 등록제도의 정상화와 함께 우수한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보유한 기술인력의 30% 이상은 해당 업종의 현장 실무경력을 갖추는 요건을 마련하는 등 건설업 등록 단계에서부터 자격검증을 엄격하게 시행 - 상습적인 건설업 등록 불법대여 및 일괄 하도급 행위를 했거나, 중대한 부실공사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시장 재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유예기간을 강화하는 조치 검토 - 매년 실시되는 시공능력 평가에서 재정능력 검증을 위한 서류 제출 등 관련 방안의 검토와 이 밖에 등록제도 이외의 보증 및 입찰제도 정비, 시공과정과 사후관리 단계까지 부적격업체의 감시·감독체제의 강화 필요성 제시

■ 「CERIK 도서회원」 가입 안내

- 연구원은 건설산업 관련 보고서 및 CERIK저널, 건설동향브리핑 등 연구 결과물을 필요로 하는 관계자 및 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음.
- 도서회원에게는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정책 연구 자료 및 각종 연구 발간물, 정기 간행물을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으며, 수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문의 : 출판팀(Tel. 02-3441-0839)

건설산업 청년 일자리 만들기

학부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건설관리공학을 전공하던 젊은 친구가 갑자기 은행으로 취업 진로를 변경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건설산업의 현실이 무척 안타깝다. 이러한 추세로 몇 년 더 지나면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맥이 끊길 지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생겼다.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인력 채용이 줄었지만 특히,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엔지니어링회사의 경우 제일 막내 직원이 과장급이라는 말도 있다. 이는 최소 5년 정도 신입 직원을 뽑지 않았다는 의미다. 연초 들어 모든 산업이 청년 일자리 만들기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특히 건설산업은 더욱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청년 엔지니어가 현장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는 매년 2월에서 4월까지 ‘국민안전대진단’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진단 범위와 기간을 공공시설물 전체와 상시 시행으로 확장하고 청년 엔지니어를 투입할 것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청년 엔지니어는 공공시설물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현장 실무를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진단 결과를 백서로 발행하면 우리나라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제고와 정확한 투자 수요처를 발굴하는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단기적 일자리 창출 방안이지만 발굴해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안될 것이고, 상시 운영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년 엔지니어 진입을 저해하는 제도를 찾아내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국내 대형 엔지니어링회사의 임원 비율이 평균 50%를 웃돌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6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발주처의 잘못된 관행과 정량화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통상적으로 한 기업의 임원비율이 10% 미만인 것을 고려할 때 타 산업 종사자에게 건설산업의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 그들은 이런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까.

끝으로 건설산업 차원에서 수요처가 필요로 하는 적정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정책을 짜야 한다. 기업은 학교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길래 입사한 대학 졸업생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2년 가까운 추가교육을 시켜야 하는가 하는 불멘소리를 토로하고 있다. 또한, 해외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구매전문가, 도로안전감사, 성능기반유지관리전문가 등의 기술자를 공급할 수 있는 국내의 교육프로그램과 경력관리프로그램이 없다. 현업에서 이런 요구가 있다면 청년 엔지니어가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경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현업 적응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건설경제, 2016. 2. 15>

이영환(연구본부장 · yhlee@cerik.re.kr)